

[ 종합·해설 ]

與 신당과-친노파 세대결 본격화

신당파 “정계개편 설문조사” 세몰이  
친노파 “黨 사수 당원대회” 적극대응

정계개편을 둘러싸고 여당내의 통합신당파와 친노(親盧) 그룹간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3일 '아세안+3'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13일 귀국, 과연 어떠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인지 조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지난 1일 저녁 비공개 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5일 설문조사 문항내용을 결정하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방법, 정계개편의 방향 등 당의 진로와 관련, 설문조사에 착수한다.

비대위는 지난달 실시한 권역별 의견수렴에 이어 설문조사를 통해 당내 여론을 취합한 뒤 그

“논쟁 떠나 당진로 묻는 것”

결과를 노 대통령의 귀국 이후인 오는 15일께 중순에 의원총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뜻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일단 당내 구조조정 통합신당파 의원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설문조사 결과는 전당대회 없이 통합신당 수임기구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합신당파 양형일 의원은 “당내 의원들에 정계개편에 대한 솔직한 뜻을 묻는 것”이라며 “이

제 소모적 논쟁보다는 당의 진로를 위해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내 친노파는 사실상 통합신당파인 당 지도부가 설문조사를 실시, 당내 여론을 모으는 것은 통합신당 창당을 위한 여론몰이이며 전당대회 없이 우리당 해체와 신당 창당을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리당 해체하려는 의도”

친노 직계인 이화영 의원은 “대통령이 해의에 나갔을 때 설문을 유리하게 만든 뒤 그게 다수 의견인 것처럼 만드는 것 같다”며 “비대위가 자기들끼리 설문조사 문항을 만들고,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친노 그룹은 오는 8일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당내 통합신당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당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행동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참여정치실천연대와 국민참여 1219, 의정연구센터, 신진보연대 등 ‘당 사수’를 주장하는 세력간 연대활동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들은 또한, 기간당원제 폐지 무효화를 위한 1만 당원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오는 5일에는 전국의 당원협의회장, 시도당 상무위원, 청

년위원장 등 200여명 명의로 전당대회 준비위 구성과 비대위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지난 민주당 분당과 같은 길을 걷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계개편을 둘러싸고 양측의 감정대립과 몸 싸움 등이 이뤄지면서 결국 분당이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해의 순방에서 돌아와 과연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대통령이 통합신당을 지지하는 여당 의원

노 대통령 순방후 결단 관심

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독자노선을 선언한다면 정국은 또 한차례 격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승부사적 기질이 강한 노 대통령이 당 지도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오히려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 구도 타파를 전면에 내걸면서 여당 당적포기와 중립내각 구성, 중대선거구제 도입,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개헌 등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헤쳐모여나” “독자생존이나”

민주, 워크숍·토론회 잇단 개최 당 진로 논의

열린우리당의 내용을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도 이달 중으로 정계개편 노선을 놓고 당내 논의를 진행한다.

일단 오는 6~7일 국회의원, 중앙위원,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어 ‘정계개편 방향과 민주당의 진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15일에는 광주시당 및 전남도당 당원을 대상으로 정계개편 토론회를 열고 연말에는 지도부 워크숍을 잇따라 개최한다.

현재 당내에서 가장 공감을 얻고 있는 방안은 ‘헤쳐모여나 신당창당’이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역사성, 정통성을 유지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민주당, 고건 전 총리 등 범여권 세력이 제3지대에 일제히 모여 신당을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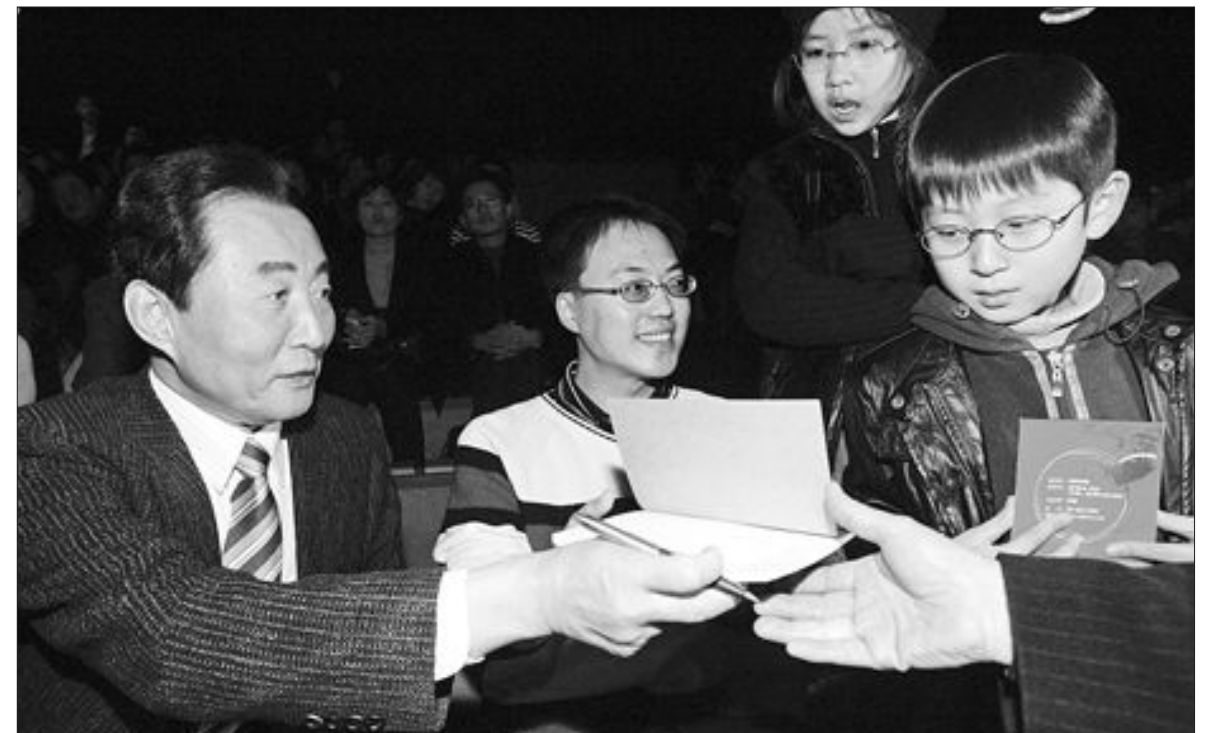
하지만 일부 당료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독자생존론’ 및 ‘독자후보론’은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독자생존론은 범여권 새판짜기가 이뤄진다고 한들 차기 대선에서 신당의 집권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고건 전 총리와 거리를 두면서 ‘도로 민주당’도 나쁘지 않다는 한화갑 대표의 행보는 독자생존론에 기를 어 있지 않느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러나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성향이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정계개편 방향과 관련, 당내에서 일관한 합의점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일단 이번 워크숍의 논의 결과는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정계개편을 이끌어가는 원론적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연말에 진행되는 지도부 워크숍은 여당의 내분이 어느정도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목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고건 전 총리가 3일 오후 서울시내 한 극장에서 ‘비보이’를 소재로 한 뮤지컬을 관람하기에 앞서 어린이 관객들에게 사인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갈림길에 선 與 비례대표

23명 거취따라 신당-친노파 세 대결 영향

열린우리당 내 통합신당파와 친노(親盧)파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비례대표 의원 23명의 선택도 주목받고 있다.

우리당의 분열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거취를 정리하는가에 따라 양측의 세 대결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외양상 비례대표 의원들의 목소리는 ‘분열없는 통합신당’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통합신당파와 친노세력간 핵 분열이 불가피, 비례대표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현실 때문이다.

우리당 창당 이후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당정분리’ 원칙 하에 공천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고 당시 의장을 맡고 있던 정동영 전 의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 비례

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실제로 정동영계 핵심인사인 박영선, 민병두, 박명광, 김현미, 김영주 의원 등은 모두 비례대표이고, 이들은 모두 통합신당파로 분류된다. 또 유승희 강혜숙 홍미영 의원은 노 대통령에 반기를 든 김근태 의장과 가깝다.

친노로 분류할 수 있는 비례대표는 노 대통령이 유일하게 당에 공천을 부탁했다고 알려진 조성래 의원과 영남출신의 김혁규, 윤원호 의원 정도이다.

따라서 친노세력이 우리당의 깃발을 이어가고 통합신당파가 탈당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지더라도 당에 잔류한 비례대표 대다수는 ‘몸은 우리당, 마음은 통합신당’의 이중플레이어를 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한 “與 정계개편은 아바위 놀음”

한나라당은 3일 어린이가 최근 정계개편을 구제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을 속이는 ‘아바위 놀음’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집권여당이 심야회담이나, 설문조사나 하며 연일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당정간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핑공계를 벌이고 있지만 국민 눈에는 똑같다. 이리 저리 패를 옮겨 눈속임으로 이득을 챙기려는 아바위꾼과 다를 게 하나 없다”고 공격했다. 한편 한나라당에서는 노 대통령이 오는 13일 귀국한 이후 여당이 정계개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지자 기존의 대선구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간의 정계개편 논란이 가속화되면서 여론의 관심이 급속히 여론으로 쏠리고 한나라당 대선주자에 대한 언론노출이 줄어드는 데 대해서도 새로운 이슈개발에 따른 ‘맛볼 작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격적 마케팅’ 나선 고건

원탁회의에 중량급 의원 끌어들이기

노벨상 기념행사 참석·구미 방문도

여권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건 전 총리 측이 원탁회의의 성공적 구성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최소한 이달 말까지 통합신당 창당의 기반인 ‘원탁회의’가 성공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이는 곧 고건 총리의 몰락을 재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고건 총리측은 문화상 전 의장을 비롯, 중량급 중진 의원은

민주당 등 각 당의 상징성 있는 의원들이 원탁회의에서 정계개편을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당장, 우리당 수도권 의원들의 이름과 함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고건 총리는 오는 7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한편, 오는 8일 지지자들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를 방문할 계획이다. 산토끼, 집토끼를 동시에 관리하며 고건 전 총리의 전국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동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농어촌 및 도시 가정용 심야전기 보일러를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심야전기보일러 구입 신청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 그동안 심야 전기 보일러를 못놓으신분
- 목돈이 없어서 망설이시는 분
- 지금 전화하신타면 설치완료
- 선설치후 최대 36개월 분할 납부 가능

※21평형 398만원 한전불입금 내선공사비·설치비 보일러포함(온수기 별매)

아직도 비싼 기름으로 난방을 하십니까?

기름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월 난방비용 \$200,000~400,000원 이상 사용가정	월 난방비용 약 2~7만원 OK
- 난방온도 60°C -	- 난방온도 90°C -

※(주)경동보일러-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서비스※

상담문의 010-9469-9373 (062)673-4981

서울본원 1차 최종합격생 156명  
KPA회원 2006년2차 필기합격자 총 319명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랑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1일·15일 개강(수시접수)

- 8개월학원제 / 1년 학원제
- 오전이론+저녁이론강의+오후실전문제풀이+기초영어 모두 수강 가능
- 27개월 종합반-오전이론+저녁이론 강의+기초영어 수강
- 1개월 무료 통영상계(회원제) • 전용지침실 사용 가능
- 정독서실, 도서관 할인 혜택 • 시뮬레이션 무료사용 가능
- 매주 토요일 기조영어특강 수강 • 심화반 선별 맞춤형 수강
- 매일 실전모의고사 실시(OMR카드 성적처리·개별성적표 제공)

\* 차별화된 전문 교수진

경찰학개론 김지규 교수	형법 조태업 교수	형사소송법 윤경근 교수
수사 오수령 교수	영어 오순아 교수	영어 김지선 교수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전담하고 후문 앞  
www.police3112.net

**공무원 쉬운것!**

2007년 4-6월 국가직 시험 실시예정

- 교정공무원
- 사회복지직
- 소방공무원
- 보호관찰직
- 세무공무원

개강 12월 1일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www.kjkimyoung.co.kr

**대학편입 마무리과정(6주)**

개설과목: 영어/생물/화학/유기화학/한문/한역학

1차개강: 12월 1일, 2차개강: 12월 4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 개강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 1월예정

김영대학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227-8088